

시 당선작 - 이서영

# 있다 잊어버리자 잊혀지거나 등등

고유의 방식으로 꿈은 형태를 지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우개로 지우는 것과 다르게 아무데서나 지우고 싶은 것부터 지운다 깨끗하게는 아니고 주변을 쓱쓱 문명문명 어떤 부분은 등근 땀방울이 보이다 만지려 하면 밀가루처럼 아늑해져서 모양이 참 막연해져서 무엇이었더라 말할 수 없게 한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데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뒤통자라 그것은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희미함 무게도 감촉도 없지만 분명 거기 있는 알갱이들 나는 안개로 건물을 짓고 지붕을 뚫은 철근을 보고 낙서가 적힌 흑판을 본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일을 하다 싸움이 나고 또 금방 화해한다 맥락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 나는 지략을 세워 크게 승리한다 다만 칭찬이 무엇의 결과였는지 명확치 않다

시 당선소감

## “내 여물지 못한 아픔 선별해주신 분께 감사”

자기 전에 발바닥에 바셀린을 발라두었는데 밤새 신발도 없이 어디를 헤맨 것처럼 발바닥이 아팠다. 깨어나 보면 또 아무렇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겠지. 내가 헤맸을 골목들 어둠들... 오랫동안 만진 생각이 있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늙거나 앓거나 습관에 기대어 조금씩 변형하면서. 대부분 좋지 않거나 쓸모없어서 버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 밖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용도보다 훨씬 앞선 것, 거기 있을 뿐이라는 듯. 커튼이 항상 묶여 있는 것처럼, 시를 썼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주문을 언제부터 받았던가. 나를 넘어서기 위해 조금만 더 해야 하는데 난 그 조금만 더를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손도 못내고. 어쩌면 조금만 더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일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면 어쩌나, 나는 정말 어쩌나, 이 가여운 나는, 어디로 사라지고 누가 와야 이 습관의 나는 대체되는 것일까, 당선 소식을 들었다. 나의 밤들이 말들이 그것인 채로 당선 소식을 들었다. 그래, 시를 더 써보겠느냐고, 마치 꿈처럼 연락이 왔다. 다른 호흡 다른 표정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영 같은 불확실함에 휩싸여 당선 소식을 들었다. 내 여물지 못한 아픔을 선별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로 이어져 긴 시간의 터널을 함께 걸어온 '생오지문예창작촌', '시가 흐르는 행복학교' 문우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 늘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박순원 교수님, 김성철 교

수님, 유홍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엄마, 어머니, 이 기쁨은 온전히 두 분 것입니다.



이서영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생오지문예창작촌' 시동인 활동 ▲'시가 흐르는 행복학교'에서 창작수업

시 심사평

## “일상의 감각 잡아채려는 의지 돋보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 해 동안 내면으로부터 쉽게 길어 올린 언어들을 대면하는 일은 축제 같았다.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삶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웠다. 시는 삶의 어떤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 형식 안에는 삶의 여러 단면들을 통해 즐겁거나 기쁘고, 아름답거나 시련 우리네 조용한 비명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번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응모된 시들 중에는 '사람과 언어가 만나 전류를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몇몇 만날 수 있어 숨이 찼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 가운데 현이영은 조근조근하고 잔잔해서 뭔가 있을 듯하여 아주 여러 번을 읽지만 결국 분위기만 읽혔다. 김원두는 발랄함과 특이한 시선이 개성이 무기인 듯하지만 의외성과 유아적인 밀그림을 받치고 있는 것은 허무함이었

다. 김영숙의 시는 일상적이며 사변적인 틀에 걸려 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흥여니는 읽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만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떠나지 않은 건 이서영과 엄경은의 시. 이서영의 '몽칼'과 '있다 잊어버리자 잊혀지거나 등등'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몽칼'은 선명해서 맑게 다가온다. '있다...'는 숨기면서, 드러내면서, 은밀하게 직조되어 있다. 또한 특유의 건조함이 세련된 미학을 만들고 있다. 엄경은의 '기본과 기분'은 무엇이 시로 탄생되는지를 잘 아는 숙련된 예비 시인의 작품이라 감탄했다. 하지만 '기본'에 대해 잘 그려내고 있다가 '기분'을 언급하면서 맺는 한 줄이 시 전체를 단번에 파괴하는 느낌이였다. 이서영의 '있다 잊어버리자 잊혀지거나 등등'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자칫 흘러버리기 쉬운 일상의

감각을 잡아채려는 의지와 선명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그려낸 화법이 아름다웠다. 당선을 축하하며 직작하지만 한 세상에 더 많은 울림들을 차려놓기를 바란다.



이병률 시인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5등 ▲문학동네 계열사 출판사 '달' 대표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한다' 등 다수

## 회재 박광옥 배향 벽진서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임진왜란 당시 광주에 의병도장을 설치하고 의병 모집과 군수물자 조달 등에 힘쓴 회재 박광옥(1526-1593) 선생을 배향한 벽진서원이 향토문화유산이 된다. 광주 서구(정장 서대석)는 최근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 풍암동 벽진서원을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02년 서구 벽진동에 벽진사로 건립된 벽진서원은 1604년 지금의 명칭으로 명명됐고 1678년 총장공 김덕령 장군을 추배하면서 의열사로 사액 받았다. 그러나 1868년 서원 훼철령에 따라 훼철된 이후 1927년 서구 풍암동에 윤리영당을 설립한 이

후 박광옥 선생의 영정과 회재유적복판(시지정유형문화재 제23호)을 보존해왔다. 이후 광주시의 도시개발 확장에 따라 1999년 윤리영당을 현재의 장소로 이설 복원했으며 2018년 6월 벽진서원으로 재개원했다. 벽진서원은 서구 지역에서 유일한 사액 신실인 의열사를 갖추고 있는데 광주에는 광산구 월봉서원과 남구 포충사가 사액 원사이다. 특히 월봉서원이 고봉 기대승의 문(文), 포충사가 제봉 고경명의 충(忠)을 대표한다면 벽진서원의 회재 박광옥은 학자 겸 의병장으로서 문과 충을 함께 아우르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회재 박광옥의 덕행과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벽진서원

## 광주문학예술단체 문학무크지 '공통점' 5호 발간

광주를 기반으로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문학예술단체 '공통점'이 문학무크지 '공통점' 5호를 발간했다. 이번 5호의 주제는 '우리 시절 아카이브'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회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면을 꾸렸다. 지난 5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잊고 있는 각자의 '처음'과 '초심'을 회상해보며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겨보자는 취지다. 기획으로 인터뷰, 문장 수집, 사진 아카이브, 활자 연극이 마련됐다. 인터뷰 코너 '멈춘 공간으로 데려가기'에서는 김병관과 세대별 인터뷰이들의 회

상과 일상에 대한 대화가 담겨 있다. 이기현의 문장 수집 코너 '나의 첫 문장 시 껌대기'에서는 자신의 처음을 회상하며 참여자들이 보내 온 문장을 엮어 한 편의 시를 선보인다. 조은운의 '우리 시절 아카이브'에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실렸다. 김봉만, 오펜레의 활자 연극 '지금 누군가 우리를'에서는 게임 시뮬레이션과 같은 두 인물의 대화를 만나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문체부, 6일 신축년 온라인 신년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6일 오후 7시 '2021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예술의전당의 네이버TV·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한다. 1부는 여자경 지휘자와 함께 애국가로 시작한다. 이어 바리톤 이인규의 '당연한 것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내 영혼 바람 되어', 드보르자크 '꿈속의 고향'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발레 무용수 김지영과 김기원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더

미션'에 맞춘 합동공연을 펼치며 소프라노 박혜상은 '미스터 선샤인'의 삽입곡 '그 날'을 노래한다. 2부에서는 지난해 초연한 창작오페라 '박사사탕'의 서곡으로 막을 올리며 피아니스트 김선옥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사단조'를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KBS 교향악단이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한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평강안마지압원</b></p>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p>	<p><b>In.ssalon_sia</b></p> <p>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p>	<p><b>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b></p> <p>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p>	<p><b>문화결혼상담소</b></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b>법무사 이영석사무소</b></p> <p>동구법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p><b>보 광 세 탁 소</b></p>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b>국수나무 광주신안점</b></p> <p>북구서안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p><b>동 양 철 학 원</b></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b>필 스 제 화</b></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b>법무사 김운희사무소</b></p> <p>목포시정의로26-4번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택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p><b>고 전 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하중 ☎ 062)224-4869</p>	<p><b>남도철학원</b></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p><b>신 신 예 술 의 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웅추해신삼계탕</b></p>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p><b>드림케어슬루션</b></p> <p>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p>	<p><b>제니골드(귀금속카페)</b></p> <p>동구 총장4가 3-3 (광주 총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리페,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p><b>초 대 화 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박 당 화 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